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26회기, 3부

열왕기하 17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스라엘의 가을의 결과 17장 24절부터 41절입니다. 이제 RSV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NIV가 있는데 NIV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 그곳에 살 때에는 여호와께 경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인들이 빼앗았던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 이 이것은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 종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건가요? 음, 믹스 마스터에 넣으세요. 당신은 그들을 사방으로 옮깁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섞습니다. 첫째,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시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국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그곳에 거주할 때에는 여호와께 경배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응? 두려움, 두려움을 표시하십시오. 이 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다.

32절과 39절 사이에 1, 2, 3, 4, 5, 6, 7, 8, 9, 10, 11번 나옵니다. 모든 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엔 그들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은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그를 숭배했다고 의심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 생각엔 그들이 그를 숭배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그리고 용서해주세요. 그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숭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손 안에 쥐고 계시며 언젠가는 청산을 요구하실 전능하신 존재가 있다는 이해 위에 자신들의 삶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여기 있게 놔두는 한 나는 그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날 잡으러 나갔어. 그리고 나는 죽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는 당신을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 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1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실제로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경외심 속에 산다는 것, 삶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삶은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이번 주에 불타오르는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알지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편리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득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거기 내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NIV가 더 좋아졌습니다.

NIV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토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서 말했듯이 패튼이나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꽤 좋습니다. 방법.

응, 그럴 수도 있지. NLT가 정말 옳았습니다. 나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적 관습.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싶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생각엔 그들에게 사자 몇 마리를 보낼 것 같아요. 본문은 그들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글쎄, 생각해 보세요. 땅은 황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나라는 거칠어진다. 그리고 이 무렵, 요르단 계곡에는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물병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불쾌한 정글.

그리고 거기에는 야생동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것은 야생이다.

무슨 일이야?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셨나요?

나는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사자 몇 마리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자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것은 약 50세기 동안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앗수르 왕이 이르되 네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다시 거기서 가서 살게 하여 그 땅의 하나님의 요구를

백성에게 가르치라 하니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아니요. 그는 그들에게 종교적 행동이 뒤섞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약간의 야훼교가 가미되어 있나요? 그렇지. 약간의 이교도를 가미한? 확신하는. 그냥 지나갈 정도입니다.

어머. 최고의 종류의 인간 종교.

그래서 성직자 중 한 명이 왔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는 어디에 살기 위해 왔습니까? 28절을 보고 있습니다.

베델. 베델은 무엇이었나요? 그 황금 우상 중 하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일부 역사적 전통. 약간의 야훼적 우상 숭배가 가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 민족이 그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당에 지은 산당들에 세웠느니라. 응.

그들은 “오,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그들은 그를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님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그분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Tartac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하고 갈 준비가되었습니다. 31절.

와 족속은 님 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습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스발와 임의 신들인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봐봐.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또 자기 백성을 다 세워 산당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삼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관습에 따라 자기 신들도 섬겼습니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나라들의 관습. 자,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우 제한된 경의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친숙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신들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지를 엄호하세요. 정확하게 그들의 기지를 덮으세요.

정확히. 우리는 이 주변에 더 이상 사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응.

먹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유회라고 합니다. 예.

예. 그를 달래기 위해. 다시 한 번, 나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그것이 저를 묘사하는 것인가요? 아, 나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공하기 위해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의 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정기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두려워요... 그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은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을 보내기 전에 먼저 17장의 35절부터 39절까지를 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아름답게 요약한 것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너희가 경외할 자니라 그분께 당신은 몸을 굽힐 것입니다. 그분께 희생을 바쳐라.

너희는 율레와 법도와 율법과 율레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써 주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하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라.

아, 네, 기억나네요. 난 그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요점을 밝히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세력, 인류의 모든 세력,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토대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르리라. 그분은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응.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를 기억해.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있는 이 슬프고 슬픈 장을 읽고 생각할 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이 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당신들에게 립서비스를 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랐다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여 분명한 약속과 확신에 찬 신뢰, 기쁜 마음으로 버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